

노관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책은 지난 4~5년간 지은이가 발표한 습작들을 한데 엮은 논문 모음집이다. 처음부터 책의 제목을 구상하고 습작들을 발표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습작들을 발표하고 나중에 책의 제목을 정하려다 보니 애를 많이 먹었다. 습작의 시간으로부터 제목의 시간으로 흘러가버린 신체적 시간의 불가역성에 저항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처음에는 ‘근대 바깥의 근대’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고심 끝에 지금의 제목 ‘기억의 역전’으로 바꾸었다. 이 제목의 출처는 『고전통변』의 목차에서 유래한다. 지은이는 조선후기에 기묘사림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사회에서 왕정으로 돌리기려는 흐름이 있었음을 통찰하고 이를 ‘기억의 역전’이라 명명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 제목의 어감은 영문 번역 Reversal of Memory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될지 모르겠다. (벤저민 엘먼의 The Great Reversal이라는 강연 제목도 고려했다.) 지은이는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역사적 기억이 근대주의에 의해 전도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돌이키는 실천적 행위로서 역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기서 역전이라는 어휘가 지은이의 생각을 얼마나 적절히 전달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도 든다. 전환기의 역사의 길목에서 유교 전통을 선택해야 했는지 서양 근대를 선택해야 했는지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추구하는 풍조에서 보자면 기억의 역전이라는 관념은 거의 무의미하게 비칠지 모르겠다. 유교 전통을 선택했던 열패자와 서양 근대를 선택했던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이한 역사의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극명히 체감한 이상, 기억의 역전을 말한다는 것은 우승자의 성공 스토리를 뒤집고자 하는 열패자의 공허한 녀두리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 근대에 관한 19세기 패러다임이 추락하고 있음에, 그리고 기존의 내러티브에서 위치했던 우승자와 열패자의 우열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에 예민하게 반응한 새로운 시류처럼 들릴 지도 모르겠다. 유교 전통과 서양 근대라는 이분법적 전제, 그리고 유교 전통이나 서양 근대냐고 우열 관계를 묻는 가치 판단의 개입, 이와 같은 프레임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역전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그것은 그저 뒤진 자가 앞서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은이가 생각하는 ‘기억의 역전’은 전환기의 조선사상사에서 전통에 속하는 것, 유교에 속하는 것이 근대에 속하는 것, 서양에 속하는 것보다 더 우월했다는 새로운 기억을 창조하자는 뜻이 아니다. ‘유교 전통과 서양 근대’, 또는 정확히 말해 ‘유교 전통 대 서양 근대’라는 이 단절적인 프레임, 근대주의에 의해 조장된 이 지적인 분단 체제를 허물고 전환기의 역사에 관한 새로운 통합적인 이해 방식을 추구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역사적 조건이 서양의 이식에 의한 급진적이고 단절적인 측면보다는 전통의 참여에 의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측면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전근대의 근대적 확산과 변용에 좀 더 유념하자는 지은이의 '온건한' (?) 관점은 조선후기도 포함하여 근대 이행기라 불리는 시기를 바라보는 통설적인 정통 역사 내러티브와 불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환기 사상사의 주요 의제로서 마땅히 탈중국의 맥락에서 근대 서양을 묻고 탈유교의 맥락에서 조선 실학을 물어야 할 터인데, 지은이는 그 반대로 서양 대신 중국을 묻고 실학 대신 유교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예를 들어 근대 중국을 생각해 보자. 조선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현실의 법칙을 탐구하고 미래의 진로를 전망하는 오랜 사유의 전통이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조책관계에 의한 외재적 중국 인식과 문화적으로 중화 이념에 의한 내재적 중국 인식이 혼재한 가운데 정치적 계서성과 문화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내화해 왔던 역사의 흐름 위에 있었다. 비록 식민지와 냉전의 현실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내화되고 중국이 외화되는 20세기의 단절적인 추세가 개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근대를 탈중국적인 네이션의 형성으로 독해하면서 근대와 민족으로 중국의 타자화를 추구했던 시각이 대두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근대 중국은 여전히 그리고 새롭게 전환기 조선 지식인의 사유의 준거점을 제공하면서 조선사상사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전환기 한국 지식인들이 근대 중국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대해 사유했던 전형적인 사례는 『황성신문』에서 발견된다. 『황성신문』은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명 진보를 추구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으로 한중 양국이 외세에 의해 공통적으로 부과된 종속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자강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자강의 모델로 중국의 제반 국가 개혁을 투시하는 한편 한국 독립을 위한 연대의 대상으로 중국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근대와 민족의 가치에 집착하여 중국의 타자화를 추구하며 서양 근대 또는 한국 민족에 도달하고자 했던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와 다른 『황성신문』의 제3의 길이었다. 국망 후에도 한국 지식인은 한중 양국의 공통된 역사적 현실을 돌아보며 현대문명 비판의 차원에서 고전 중화의 근대적인 부흥을 호소하거나(유인석의 「우주문답」) 한중연대의식에 입각해 한중적 근대사를 창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박은식의 『한국통사』), 심지어 해방 후에도 친미와 친소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근대 중국의 사상가 양계초의 설법으로 무장된 신민의 정치사상을 분출하였다.(이관구의 『신대학』) 이것은 거시적으로 '전통 중국과 조선사상사' 내지 '근대 서양과 조선사상사'라는 낯익은 테마와 구별되는 문제적 지점으로서 '근대 중국과 조선사상사'라는 전환기적 문제를 새롭게 제출한다.

근대 중국과 더불어 전환기 조선사상사를 새롭게 독해하는 키워드가 도시 유교이다. 전환기 도시 지역의 유교적 지역 주체의 형성을 조선후기에서 근대초기에 이르는 거시적인 시야에서 설명하고자 할 때 기왕의 전통-근대 패러다임은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 전통에서 근대로의

역사적 변환과 내재적 근대의 성장을 위한 사상사적 설명으로서 개진된 조선후기 실학 사조론이 전환기 도시 지역의 유교적 지역 주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조선후기 대표적인 상업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개성 지역에서 근대 초기 신교육운동과 한문학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지역 주체가 개성 명사 김택영과 연결된 개성 문인들이었는데, 과연 이들은 개성 유학사의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학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인물들이었을까? 그러나 실제로 개성 유학사를 검토하면 조선후기 개성의 지성사적 상황은 실학의 발흥이라기보다 낙학의 유입에 따른 성리학의 중흥이었고, 성리학이 중흥한 후 지역 유교 전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마침내 근대에 들어와 유교 교양으로 무장한 지역 주체가 결집되어 개성 지역운동을 이끌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교 전통과 근대 사회의 연속성이라는 입론에서 볼 때 개성 유학의 상징으로서 송양서원의 변화는 전환기 도시 유교의 상징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성리학이 침체되어 본래 강규의 전통이 없던 송양서원은 18세기 개성의 대유 조유선이 낙학 산림 김원행을 원장으로 초빙하면서 비로소 강규를 갖추어 유교 교육의 틀이 확립되었다.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개성 문인들이 개성학회를 결성하고 신교육운동에 돌입했을 때 송양서원은 개성 문인들이 집결해 정몽주의 충애 정신을 복돋는 사회교육의 장소로 기능했으며, 다시 이들이 송양문예사를 결성하고 한문학운동을 전개했을 때 송양서원은 개성 문인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기념하는 책자를 출판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조선후기 개성 유학의 상징 송양서원이 개성 신교육운동의 사회적 성소이자 개성 한문학운동의 문화적 거점으로 이어진 것은 조선후기 유학의 확산에서 출발해 근대 초기 유교적 지역 주체의 형성에 도달하는 방향에서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농촌 유교와 조선사상사’ 내지 ‘도시 기독교와 조선사상사’라는 낯익은 테마와 구별되는 문제적 지점으로서 ‘도시 유교와 조선사상사’라는 전환기적 문제를 새롭게 제출한다.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개념사적 성찰은 ‘유교 전통과 서양 근대’의 이분법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비판점을 제공한다. 개념사 연구에서 가정하듯 이른바 근대의 문턱에서 발생하는 언어혁명과 그것이 수반하는 전근대 개념의 근대적인 개념화는 조선 개념의 현장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전파론적 시각에서 상정하듯 반드시 근대 외래 서양 사조 또는 서양 관념의 수입에 의한 유교 전통의 개념적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설령 새로운 번역어에 의해 구성된 근대 사상이라 할지라도 번역어 그 자체가 여전히 ‘보수적인’ 한자어에 머물렀다면, 조선의 근대 개념은 서양에서 유입된 기의의 단절성보다는 오히려 전통에서 유래하는 기표의 연속성에 의해 규제됨을 특징으로 하지는 않았을까? 하물며 전환기의 역사적 현실에서 실천적인 수행성이 높았던 개념어가 반드시 외래 번역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선후기에 형성된 유교 전통의 개념어들은 모두 근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일까? 어쩌면 20세기의 급격한 역사적 격변에 휩쓸렸던 생활세계의 새로운 경험에 압도된 사람들의 근대적 감각이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보다 앞선 세대의 경험에 단절적인 또는 급진적인 서양

근대 서사를 부여하면서 전환기 조선 개념의 현상이 망각된 것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실학은 어떠한가? 조선시대에는 참다운 유학을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조선후기 실학을 지칭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실학이 전환기 조선 사회에서 획득했던, 지금은 잊혀진 전환기의 특정한 용법을 기억하고 있는가? 국가의 새로운 학제가 목표로 하는 신교육, 이 학제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학교에서 수행하는 신교육, 세계열강의 교육 기관에 유학 가서 얻는 신교육, 전환기 실학의 외연은 이리하였다. 새로운 학제와 새로운 학교에 의해 교수되는 교과 학문 전반, 그 중에서도 근대 문명의 성취와 국가 부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과학 중심의 격치학, 士의 전문학, 농상공의 실업학, 전환기 실학의 내포는 이리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기에 각성된 ‘금인의 실학’, ‘금일의 실학’은 조선시대 유교 개념으로서 실학이 근대의 문턱에서 겪은 코젤렉의 ‘시간화’가 아니었을까?

또한 신채호의 ‘아’는 어떠한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라는 명제로 잘 알려져 있는 신채호의 ‘아’에 대하여 그간 ‘아’의 함의를 둘러싸고 양립했던 민족과 탈민족의 이념적인 해석은 전환기의 문제적 개념으로서 신채호의 ‘아’를 충분히 성찰했던 것일까? 신채호의 사상을 내셔널리즘의 시기와 아나키즘의 시기로 양분한 다음 내셔널리즘의 시기는 내셔널리즘의 어법으로 아나키즘의 시기는 아나키즘의 어법으로 설명했던 유형론적이고 환원적인 연구들, 그러한 가운데 신채호의 ‘아’를 연구자가 신봉하는 민족 또는 민중의 이념으로 흡수하고자 했던 본질주의적 접근들. 그러나 실제로 전환기 신채호 사상의 키워드로서 ‘아’가 위치했던 개념 지형은 ‘아=개인’과 ‘비아=사회’의 대립이었고, 그가 취한 ‘개인=독립’과 ‘사회=비열’의 구도에서 상정되는 ‘아’의 성격은 차라리 서양 근대의 민족 또는 민중보다는 流俗과 대립하는 眞儒로서의 유교적인 주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끝으로 이 책 『기억의 역전』의 지은이는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와 한국근대사상사 연구에 다음과 같은 충고를 전하고 싶다. 조선후기 사상사 텍스트는 적극적으로 한국근대사상사 텍스트와 접속되어야 한다. 한국근대사상사 텍스트는 적극적으로 조선후기 사상사 텍스트와 접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사상사 언설의 근대적 전망의 한국적 맥락, 그리고 한국근대사상사 언설의 전근대적 기원의 한국적 맥락이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조선후기 사상사와 서양 근대, 대한제국기와 서양 근대, 일제식민지시기와 서양 근대, 이런 식으로 서양 근대라는 허브에 의존해 한국사상사를 설명하는 ‘근대학’의 제국주의, 또는 중국학의 일부로서 조선후기 사상사에 접근하고 일본학의 일부로서 근대사상사에 접근하는 ‘동아시아학’의 지역주의, 이런 풍조 속에서 한국사상사의 파편화, 斷代化가 심화되고, ‘근대학’, ‘중국학’, ‘일본학’에의 종속화가 심화된다면, 우리는 과연 보편학으로서의 한국학을 말할 수 있을까? 지은이의 다음 연구서의 제목으로 한국의 전근대와 한국의 근대를 접속시키고 소통시킴으로써 새로운 한국학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법고창신의 한국학’을 꿈꾸어 본다.